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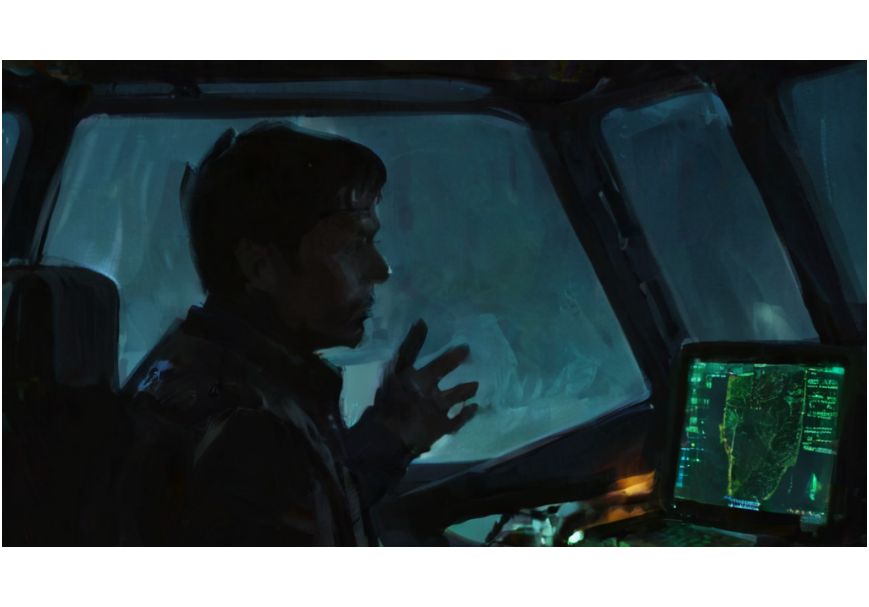
EPISODE 26

❖

동녘은 ZZBB52의 기체를 만져 보았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오직 지후만이 그걸 알고 있어.”

ZZBB52를 자세히 살피던 동녘은 기체의 뒷편에 해치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었다. 열린 해치를 통해 ZZBB52의 콕핏이 드러났다.



동녘은 열린 해치를 통해 콕핏 안으로 들어갔다. 콕핏 안을 살피니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석과 무언가를 장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어판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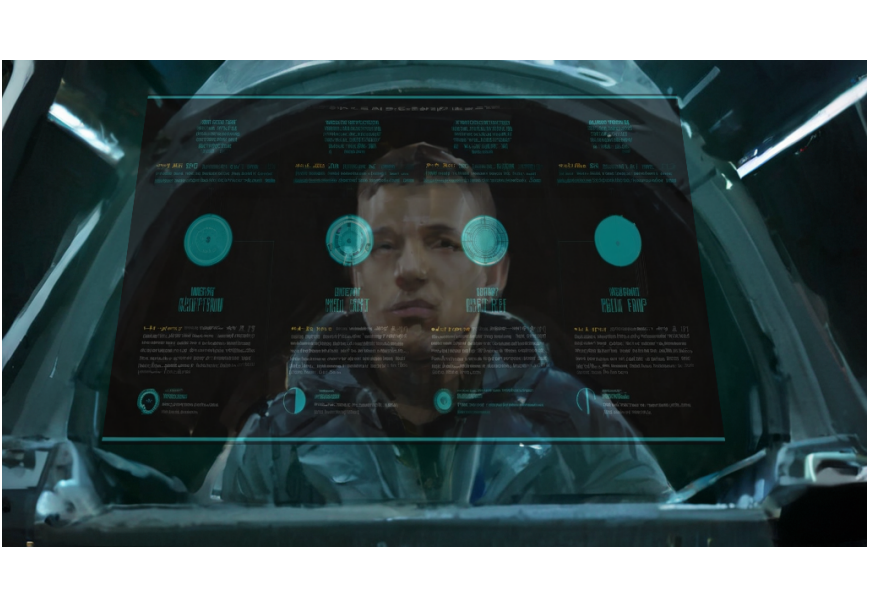
동녘은 품에서 꺼내 제어판에 빈 공간과 캣츠아이를 비교해 보았다. 딱 들어 맞게 생겼다는 걸 깨달은 동녘은 캣츠아이를 제어판에 삽입했다. 그러자 ZZBB52의 콕핏이 약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콕핏 안에 조명이 들어왔다. ZZBB52의 작동이 시작된 것이다.

동녘이 콕핏 안의 변화를 살피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콕핏 천장에서 케이블 하나가 동녘 모르게 내려왔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조심스럽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동녘이 고개를 돌려 천장에서 내려온 케이블을 발견한 순간, 케이블은 마치 독사가 사냥감을 덮치듯이 빠른 속도로 동녘의 뒷목을 향해 달려들었다.

케이블이 동녘의 뒷목에 위치한 신경 축에 연결되자, 화면에 녹색 텍스트 하나가 떠올랐다.

[싱크로율 100%]



하지만 100%라는 수치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한 탓이었다. 싱크로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자 녹색이었던 텍스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수치가 0%까지 떨어지자 붉은 색으로 경고 텍스트가 떠올랐다.

[엔지누스 전용 기체, 작동 불가]

곧바로 또다른 텍스트가 이어졌다.

[마더 컴퓨터에 접속 가능합니다. 마더 컴퓨터에 연결하시겠습니까?]

동녘은 무의식적으로 [예] 버튼을 눌렀다. 동녘의 정신이 어딘가로 접속되기 시작했다. 동녘의 몸이 짧게 경련하더니,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동녘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지는 동안, 동녘의 의식은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는 마더 컴퓨터의 우주 안에서 떠올랐다.

‘지후,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우주 공간 위로 서현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동녘은 거대한 서현의 얼굴을 향해 항변했다.

“서현 씨, 난 동녘이에요.”
‘네 의식은 지후와 별개일 수 있지, 하지만 의식을 지배하는 건 기억이야. 고로 넌 지후다.’
“그렇지 않아. 지후의 기억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단 말야!”
‘글쎄, 난 네 기억이 다 보이는데.’

서현이 말을 끝내는 순간, 동녘의 머릿 속으로 새로운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현과 결혼해서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 아기였던 은성을 처음 안고 활짝 웃던 기억, 단란한 가족으로서의 기억 들이었다. 동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동녘의 눈빛은 더 이상 동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후의 눈빛이었다.

“서현아, 우리 행복했었잖아. 다 좋은 기억들 뿐인 걸.”
‘그랬었지. 당신이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시 새로운 기억들이 주입되듯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캣츠아이에 둘러싸인 기억, 나선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 지후를 원망하며 억지로 실험 당하는 은성을 냉정하게 지켜보던 기억, 서현의 두개골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기억 들이었다. 더 이상 동녘은 없었다. 기억을 되찾은 지후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끝까지 복종하진 않았어. 협조하지 않으려 도망쳤지….”
‘맞아. 당신은 [도망쳤을] 뿐이야. 맞서 싸우진 않았지.’
“싸우기 위해 이 모든 걸 만든 거야! 싸우기 위해!”
‘나에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이야. 그럼 안녕.’

마더 컴퓨터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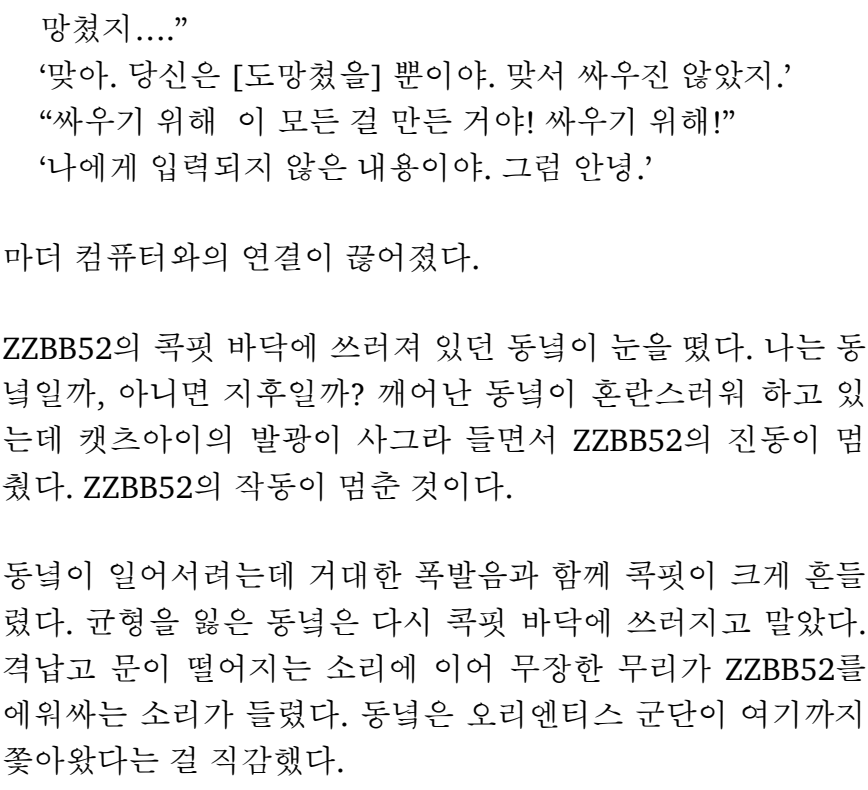
ZZBB52의 콕핏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녘이 눈을 떴다. 나는 동녘일까, 아니면 지후일까? 깨어난 동녘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캣츠아이의 발광이 사그라 들면서 ZZBB52의 진동이 멈췄다. ZZBB52의 작동이 멈춘 것이다.

동녘이 일어서려는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콕핏이 크게 흔들렸다. 균형을 잃은 동녘은 다시 콕핏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격납고 문이 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무장한 무리가 ZZBB52를 에워싸는 소리가 들렸다. 동녘은 오리엔티스 군단이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걸 직감했다.

ZZBB52 콕핏 안 모니터가 켜지더니, 은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조잡한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니, 내 아버지답지 않군.]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마더 컴퓨터에 접속을 했지 않나. 미련하긴.]

❖



오리엔티스 대원에게 끌려 나온 동녘이 은성의 앞에 무릎 꿇렸다. 정비공들이 ZZBB52를 조사하기 위해 기체를 빙 둘러서 에워쌌다. 격납고 앞에는 은성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ZZBB51 기체가 보였다.

“그래서 지금 자네는 내 아버진가 동녘인가?”
“너는 내 아들이냐, 한재호냐?”

은성이 활짝 미소를 지었다.

“똑똑해진 걸 보니 내 아버진 것 같네? 그런데 왜 ZZBB52를 가동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우리 어머니께서 방해하셨겠구나.”

은성이 비열하게 웃으며 비아냥댔다. 동녘은 당장이라도 은성을 덮칠 것만 같은 위협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너 이제 어쩔 셈이야. ZZBB51로 무슨 짓을 할 셈이지? 모두의 자유의지를, 결국 뺏을 생각인가?”
“자유의지를 빼앗았다고 [주장]한 건 DR. NEX 군단이었지 우리가 아냐.”
“너희들과 에녹기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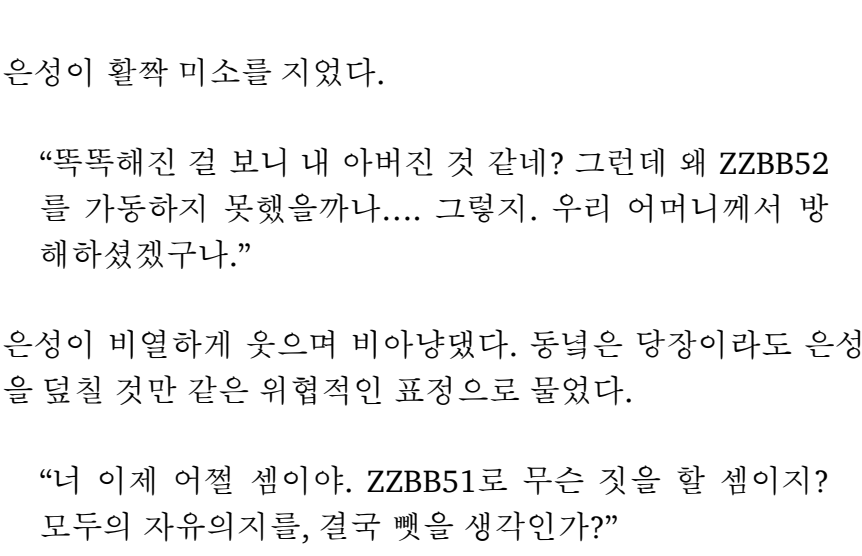
은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동녘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매서운 눈빛을 한 채.

“에녹기사단은 지구를 지키려는 단체야. 잊어버린 건가?”

동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은성이 비웃듯 덧붙였다.

“정말 모르는 눈치군.”

❖



퍼스트 임팩트. 서울에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 당했던 사건. 정작 퍼스트 임팩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시피 하다.

하늘 위에 떠 있던 거대한 외계 모선과 ZZBB51를 포함한 네 대의 아머 유닛 기체가 시민들을 내려보던 풍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를 전할 사람이 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야기를 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머 유닛 기체들이 캣츠아이처럼 붉은 빛을 발하자, 자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 자의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습격했다. 그 풍경은 가히 상상 속 좀비 아포칼립스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이 모든 것은 외계 모선과, 그 모선을 따르는 네 대의 유닛 아머 기체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

“그게 퍼스트 임팩트의 정체라고?”

동녘이 격납고 앞에 세워진 ZZBB51을 보며 은성에게 물었다.

“신께서는 질서에 있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 퍼스트 임팩트는 그 예시였다. 에녹기사단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자들을 질서 아래 놓으려 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 신이 누군데? 외계인들?”

은성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당신은 신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하고는 배교를 했지. 당신은 사탄이다.”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면 질서가 다 무슨 소용이야?”

은성이 무릎을 꿇은 동녘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분명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

길고 장황한 이야기가 은성의 입을 통해 이어졌다. 인간의 뇌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 복잡한 이야기는 차치해 두고, 질서에 놓일 경우의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선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인류의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자유의지를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질서 안에 넣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는 것이다. 동녘은 이야기를 듣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러다 문득, 서현이 떠올랐다.

“서현을 다시 꺼낼 방법은 없는 건가?”
“나야말로 그걸 당신에게 묻고 싶었다.”
“지금 서현은 어떤 상태지?”

Continued to ep.27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